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2, 장르와 역사학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세션 2, 장르와 역사학입니다.

학자들은 사도행전의 장르나 문학적 유형을 다양하게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 중 하나는 전기인데, 그 제안에는 유용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다른 제안과 이것은 훨씬 더 논란의 여지가 있었는데, 주로 Richard Pervo가 제안한 Acts가 소설이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실제로 Pervo는 오늘날 아니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그는 Acts가 소설이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다만 소설과 비교하면서 『행전』을 엘리트 역사서가 아닌 대중적 수준의 작품으로 인식했을 뿐이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일종의 소설적인 역사서술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소설의 제안을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원래 주장을 받아들여 사도행전은 소설이거나 소설로 읽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주장 중 하나는 루크가 그의 상대를 희화화하고 그들이 정말 나쁘게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나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루크가 그들을 특징짓는다고 해도 그것이 소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모든 논쟁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은, 타키투스, 고대에 역사가가 있었다면 그는 바로 타키투스였습니다.

하지만 Tacitus가 Nero와 Domitian을 어떻게 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로나 도미티아누스에 관한 나쁜 소문은 결국 타키투스의 작품으로 귀결됩니다. 사람들은 주어진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Pervo는 난폭한 봅을 인용합니다. 소설에도 등장하지만, 고대 역사서에도 곳곳에 등장한다고 한다. 고대에는 소란스러운 폭도들이 많이 있었고 소설에 나오는 것 못지않게 역사적인 작품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는 후기 기독교 행위, 바울과 테클라 행전, 베드로 행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요한 행전 및 기타 여러 행전에 호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가의 행위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루크의 행위가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데 동의하므로 우리는 이후의 행위를 실제로 읽을 수 없습니다.

사실 그 후기 작품들은 소설의 전성기인 2세기 말, 3세기 초에 나온 것들이다.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으며 Richard Pervo 자신도 그 날짜를 그렇게 늦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고대 소설은 대개 로맨스였습니다.

여러분은 요한의 행적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몇몇 행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이러한 후기 행위 중 일부는 기독교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후기에 글을 쓰는 경우 일부 집단에서는 로맨스보다 독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바울행전이나 테클라행전과 같은 후기 행위를 살펴보면, 그곳의 주요 여성 인물은 남편을 떠나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풀을 따라다니지만 그의 신부가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고대 소설은 대개 로맨스였습니다. 소설은 역사적 인물에 관한 경우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 중 몇 가지가 있습니다. Xenophon의 Cyropaedia는 이전 시대의 작품이고 후기에는 Pseudo-Callisthenes라고 불리는 누군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더의 로맨스를 쓴 칼리스테네스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500년 전에 살았던 누군가에 대해 쓰여진 것입니다. 이는 적어도 500년 전의 역사적 정보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역사적 인물에 관한 것이 거의 없었고, 내가 본 바로는 최근의 인물에 관한 것은 전혀 없었다.

최근 인물에 대해 글을 쓸 때, 사람들은 최근 인물이나 과거 한두 세대에 대한 소설을 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1세기의 예수에 관한 소설은 없을

것입니다. 1세기의 바울에 관한 소설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그렇게 늦게, 2세기 초반의 소설도 없을 것입니다.

역사가 목격자나 동시대인에 의해 가장 잘 쓰여졌다고 여겨졌던 역사와 전기가 있는 것과는 달리, 모든 것이 그렇게 쓰여진 것은 아니지만 역사는 최근의 인물들에 대해 쓰여질 수 있었습니다. 소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소설에는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역사와의 방대한 대응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이것들은 다른 장르입니다. 내러티브의 허구화는 이야기와 소설에만 국한되었습니다. 이는 역사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습니다.

역사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루피안과 폴리비우스는 티마이오스를 비판하면서 실수가 많은 사람들을 비난했습니다. 비록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티마이오스는 실제로 역사가만큼 나쁘지는 않았다고 말할지라도, 행간을 읽어보면 폴리비우스만큼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를 비난했다. 폴리비우스는 이 경쟁의 일부를 없애려고 노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것은 역사 작품에서 비판을 받았다. 더욱이, 소설에는 누가복음 1:1-4에서와 같은 역사적 서문이나 역사적 서문이 없고, 여기서와 같은 자료의 사용도 없습니다. 나는 Lupian의 Lucius에서 발견된 이전 스토리 라인을 재활용하는 것처럼 보이는 Apuleius의 *Metamorphoses*라는 소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소스 사용에 대해 제가 아는 한 가지 예이며 매우 자유롭게 다시 작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소설이었다. 누가복음-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그것은 분명히 역사적인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루크는 다양한 출처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릴 때, 출처를 조합하는 방식에 매우 신중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의 강좌는 아니지만 복음서의 개요를 사용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고대 전기의 개요를 작성해 보면 공관 복음서가 실제로 고대 기준에 따라 서로 꽤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실제로 역사적 정보를 끌어낼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자, 역사적 서문의 관점에서 볼 때, 소설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때때로 일부 학자들은 한 가지 예외를 인용하는데, 그 예외는 Longus, Daphnis, Cloet의 소설입니다. 하지만 그 소설의 서문을 읽어보면 전혀 역사적인 서문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꾸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장르가 정말 다양해요. Richard Pervo는 소설처럼 모험이 많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글쎄요, 역사에도 모험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자서전을 읽어보세요. 확실히, 그것은 모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전쟁이나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세요. 분명히 거기에는 전쟁에 관한 글을 쓰기 때문에 모험이 있습니다. 물론, 제가 처음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읽으려고 했을 때 저는 14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만큼 흥미를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작품을 찾았어요. 나는 12살 때 Tacitus를 매우 흥미롭게 여겼습니다. 따라서 역사에는 흥미로운 모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티레의 막시무스는 역사는 즐겁고 적어도 지식인이 참석했다면 다른 형태의 오락 대신 연회에서 읽을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대중 역사학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로 Richard Pervo가 귀중한 통찰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엘리트 역사서에 나오는 것보다 덜 지루한 다른 종류의 세부 사항을 사용하여 더 모험적인 방식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역사 단행본에는 줄거리도 있어서 공통된 주제, 즉 공통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종류의 서사에서 플롯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험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모든 고대 문학 서사의 특징이었지만, 어떤 종류에서는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얼마나 나와야 합니까? 바울의 모험을 이야기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글쎄요, 고린도후서 11장을 읽어보면 누가는 바울의 모험을 누그러뜨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누가가 지면에

설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단지 샘플만 제공할 뿐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요 모험 중 하나인 바울은 탈출하기 위해 벽에서 내려갑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그것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난파선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도행전은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것보다 나중에 한 번의 난파선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파선당한 일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당에서 여러 번 구타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중 한 가지만 언급하고 있지만 그는 채찍으로 맞은 것에 대해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바울의 모험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것은 바울이 할 이유가 있는 것보다 더 자세히 일부를 설명하지만 실제로는 그 중 적은 부분을 설명합니다. Richard Pervo는 헬레니즘 소설에 나오는 영웅과 같은 영웅이 있다고 말합니다.

글쎄요, 하지만 긍정적인 전기에는 당신의 영웅도 있습니다. 전기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대개는 혼합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긍정적인 특징과 부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Tacitus가 그의 장인 Agricola에 대해 썼을 때처럼 당신이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에 대해 글을 쓴다면 그것은 매우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종종 영웅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많은 전기에 주인공이 있었습니다. Richard Pervo가 지적한 것에는 유용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Luke가 흥미로운 스토리텔링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학, 특히 대중적인 수준에서는 유사한 서술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아내는 18개월 동안 전쟁 난민이었고, 우리는 책을 썼습니다. 아직 출시되지는 않았지만, 촬영 중인 시점에서는 시청하실 때쯤에는 출시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는 많은 모험과 액션, 약간의 로맨스가 담겨 있습니다. 내 아내예요.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허구가 아닙니다.

공간을 위해 몇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지점에서 발생한 일을 연대순으로 혼합한
지점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의 장면으로 혼합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몇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그녀의 일기와 내 일기에서 직접 가져온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하는 방식대로, 나는 독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저널에 있는 많은 것들을 생략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의 내 일기는 파일 캐비닛의 서랍 두 개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크기가 작아서 싸게 팔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출판사에서 요청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적은 양의 정보만 들어 있지만, 우리의 관심에 따라
정보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렇다고 해서 소설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전기입니다.

그것은 여전히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러나 관심사는 그것이 쓰여지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의 사실과 마찬가지로 고대에도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나는 훨씬 덜 대중적인 역사서적 스타일로 그것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날짜와 일지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서사시라고 제안했습니다.

Marianne Bontz는 그것이 산문 서사시라고 제안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산문
서사시와 비교할 때 문제는 그러한 장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사시는 산문이 아닌 시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이 시적 형식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그리스어로 된 누가복음의 사도행전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산문이에요. 또한 서사시는 일반적으로 먼 과거를 다루었습니다.

글쎄요, 사도행전은 최근 과거, 최근 세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 과거는 수세기 전일 것입니다. 종종 이것은 전설이었고 때로는 순수한 신화, 즉 로마 제국의 서사시였습니다.

비록 이것이 Bontz의 작업에서 주된 매력은 아니지만 1세기 후반처럼 그렇습니다. 그녀는 주로 Virgil의 Aeneid에 호소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전쟁, 심지어 내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루칸이나 다른 사람들은 전쟁을 시적인 형태로 만들어 서사시처럼 만들고, 거대한 전쟁 여신이 군대 위에서 있는 과장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역시 시적인 형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Bontz의 주장에는 유용한 요소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이 기초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먼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 최초의 사도적 지도자들이 남긴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없다는 말은 아니지만, 산문 서사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전기라는 논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가장 가까운 유사점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의 전기를 쓴 Diogenes Laertius일 것입니다. 또한 필로스트라토스(Philostratus)의 소피스트의 삶(Lives of the Sophists)도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사람들의 전기가 함께 묶여 있습니다.

또한 여러 권이 있는 평행 생활도 있습니다. 한 권은 한 인물을 다루고, 다른 권은 다른 인물을 다루고, 이야기하려는 정보의 범위를 좁히기 위해 서로 비교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 바울이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과 빌립에 초점을 맞춘 사도행전 6-8장이나 베드로와 바울 사이를 오가는 9-12장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역사에 대한 전기적 접근 방식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역사는 사람들의 실천이나 행위를 다루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제목 실천에서 행위라는 단어를 얻는 곳입니다. 이 중 일부는 전기에 있지만 역사에도 있습니다.

예외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 적어도 500년 후에 쓰여진 *Pseudo-Calisthenes*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학자들의 대다수 견해는 행위가 일종의 역사 서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Debelius, Cadbury, Eckhart Plumaker, Emory의 Luke Timothy Johnson 및 Martin Hengel이 개최했습니다.

역사는 일부 세부 사항이 잘못될 수 있지만 그래도 사람이 모든 것을 꾸며낸 소설과는 달리 역사적 사건을 전달합니다. 학자들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관점의 학자들입니다. 이들은 학자들이 아닌데, 일부 학자들은 누가가 뛰어난 역사가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저 그런 역사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다수의 학자들은 누가가 역사서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

하나는 누가가 고대 역사서에 매우 자주 등장하는 정해진 연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대 역사학의 특징이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고대 유물에서 구약의 일부를 다시 쓸 때 더 나은 역사 편찬을 위해 연설을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때때로 그는 그리스-로마식 연설을 합니다. 그는 수사학적 역사학에 매우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세푸스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다른 시점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런 정해진 연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연설을 설정했는데 소설에도 연설이 있습니다. 예, 담론이 있고 소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역사학에서 지배적인 방식으로 정해진 연설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행전은 더 짧지만 사도행전이 더 짧기 때문에 한 권입니다. 역사적 서문. 대다수의 학자들은 누가복음 1장 1-4절의 서문을 역사적인 서문으로 본다.

Loveday Alexander는 길게 주장했습니다. 음, 이것은 과학 논문에 나오는 서문과 더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과학 논문이 아니라고 비판받았을 때 나는 그것이 과학 논문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고대 역사학의 작품이라는 데 동의하지만, 좀 더 과학적인 종류의, 어쩌면 의사나 그런 사람이 쓸 만한 종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알려진 데이터와 엄청난 양의 통신을 갖고 있습니다. 소설가들은 그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소설가들은 역사적 인물에 대해 글을 쓸 때에도 돌아가서 연구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누가는 엘리트 역사 서술의 특징인 동기화를 포함합니다. Luke는 외부 역사와 그렇게 많은 동기화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가 받은 보고서는 그에게 이것이 올해에 일어났다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누가복음 2:1.2과 누가복음 3:1.2에는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던 당시의 통치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2절에는 갈리오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에도 글라우디오 시대에 있었던 기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건들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서문에서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사건에 초점을 맞추세요. 그것은 역사학에서 당신이 집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에 대한 대안인 역사 소설은 매우 드뭅니다.

아마도 20세기 그리스-로마 고대 역사가 중 가장 유명한 역사가인 에드워드 메이어(Edward Meyer)는 누가가 위대한 역사가였으며 사도행전은 내용이 더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플레비우스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올리비(Olivi)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다른

사람들. 개인적으로 나는 Luke를 Bolivius나 Libby와 같은 범주에 넣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글을 쓰는 한 그도 글을 쓰고 싶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점은 누가가 역사서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글쎄, 어떤 종류의 역사학? 우리가 역사로 함께 묶을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출처가 있었습니다. 지역의 역사나 지역의 연대기였던 족보, 신화, 천문학, 단지 세계사의 사건을 정리하려는 연대기.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역사는 역사적 사건을 다루고 있으며, 실록과 달리 서술형이었다. 그리고 역사적 사건을 말할 때 나는 신화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신화와 같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것을 위해 출처를 사용했지만, 사람들이 있다면 훨씬 수세기 전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이건 올바른 역사인데, 어떤 종류의 역사인가요?"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제도를 쓰는 제도사인가? 교회를 일종의 정치적 실체로 보는 정치사인가? 교사와 현자에 초점을 맞춘 철학적, 전기적 역사입니까? 우리는 그 중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민족지학적, 민족의 역사인가요? 고대에도 가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각각으로부터 통찰력을 얻을 수 있지만, 역사 논문을 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단지 하나의 범주에 밀어 넣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낸 일종의 인위적인 범주이기 때문에 이들 중 어느 것도 실제로 학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습니다. 민족지적 역사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이 민족지적 역사, 즉 한 민족의 역사를 썼을 때, 그리스인들이 역사가 일반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에 의해 소외되었다고 느낀 사람들은 종종 소수 집단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그리스인들은 그리스 렌즈를 통해 다른 민족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보통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민족 중심적이어서 그리스인의 관점에서 사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다른 문명을 무시했습니다.

헤로도토스는 조금 더 공평했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비그리스 문명, 비로마 문명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쓰여진 Babylonii Acha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수스는 바빌로니아인들이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Manetha는 그의 Aegyptiaca에서 이집트인들이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는 Aigyptiaca로 발음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유대 민족이 그리스 문명보다 훨씬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 유대 고대 유물을 통해 어느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변증의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 사도행전을 보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동기에 의한 것입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질 수 있지만 동기는 무엇입니까? 역사서를 집필하게 된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글쎄요, 누가복음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동기는 또한 우리가 이러한 민족지적 역사서, 즉 특정 민족, 즉 제국 내 또는 제국 외부의 소수 집단에 대해 쓰여진 이러한 민족지적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예일 신학대학원 학장이자 당시 노트르담 대학교에 재직하고 있던 그레고리 스텔링(Gregory Sterling)은 고대 유대 역사학에 기초하여 매우 강력하고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이 글은 사과하는 내용을 강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도행전과의 유사점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은 일어난 이러한 반유대 폭동 등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또한 역사를 또 다른 관점에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내 말은, 이것들은 상호 배타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제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동기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형태별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음, 형식상으로는 그것은 단행본입니다.

여러 권의 역사가 아닙니다. Eckhart Plumacher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시편 기자의 역사 논문과 같은 역사적인 논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Richard Pervo가 지적한 것처럼 이는 대중적인 수준입니다.

엘리트 수준은 아닙니다. 글쎄요, 때때로 복음서와 관련하여 사람들이 복음서를 민속문학이 아니라 클라인문학(kleinliteratur)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즉, 복음서가 민속문학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은 클라인문학(kleinliteratur), 고급 엘리트 문학과 반대되는 서민 문학이다.

글쎄요, 확실히 누가복음은 엘리트 문학도 아니고 단순한 민속 문학도 아닙니다. 이솝의 삶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흥미로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역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이 세계 어디에 있는지, 어떤 것이 당신에게 매력적일지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감사하고 읽은 것 중 일부는 *The Hiding Place*, *The Cross and the Switchblade*, *Jackie Pullinger's story in Hong*입니다. 공, 우리의 책, 불가능한 사랑, 그리고 이와 같은 다른 것들은 우리를 반드시 같은 범주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실이지만 대중적인 수준의 방식으로 전달되는 작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이 사도행전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과적인 민족지학적 역사(이 경우에는 단행본 형식)입니다.

그리스인들은 타인을 희화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종종 우리가 고귀한 역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을 만들어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세푸스가 유대교가 합법적인 종교인 *religio licita*임을 보여 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합법적인 종교는 아니었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요세푸스가 언급하지 않은 다른 것들과는 대조적으로 강조하고 싶어하는 고대와 관용의 우선 순위입니다. 그런 일이 가끔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알렉산드리아의 헬라인들에게 유대 공동체에 대한 박해를 중단하라는 명령을 내렸고, 또한 유대인 공동체에게 선동을 중단하라고 명령했고, 요세푸스는 헬라인들을 책망한 부분만 보고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관점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는 사도행전처럼 관용의 우선권을 호소합니다.

그는 교회가 고대 역사와 고대 유산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권으로 돌아가면, 예수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암시가 있습니다. 제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암시하는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고대 이야기 속에 교회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한 교회가 박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교회의 사명이 로마법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우선순위, 호의적인 우선순위로 가득 차 계십니다. 빌라도, 예수님은 정말 무죄하셨습니다.

세르기오 파울루스, 갈릴레오, 페스투스. 벨릭스는 뇌물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변증적인 민족지학적 역사를 가지고 요세푸스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제외하고는 민족지학만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교회의 역사를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의 선교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도들을 많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쓰지도 않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이 있고, 그 다음에는 열두 제자 중 하나가 아닌 주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특히 제2소피스트 이후의 전성기에 엘리트들이 요구했던 고대 역사서술에는 수사학적 정교함이 있습니다.

2세기 이후에는 신약성서가 수사학적으로 충분히 정교하지 않다는 이유로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들은 구약이 그들을 위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 수사학 표준에 의해 정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을 더욱 무시했습니다. 이 역사가들은 이야기의 응집력을 높이기 위해 세부적인 조정을 허용했습니다.

생생함도 강조했다. 그리고 역사가들이 생생함을 강조하는 방법 중 하나는 ekphrasis라는 연습을 통해서였으며, 거기서 그들은 무언가를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수사학자들이 특히 호머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구약이 유대 민족과 기독교 운동의 정경이었던 것처럼 호머는 일종의 그리스인의 수사학적 정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Ajax의 방패에 대한 긴 설명 전체를 되돌아보고 가능한 모든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사학적인 역사가들 사이에서 흔한 일이었습니다.

루크에게는 그런 것이 부족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날 때 그들의 상처가 아픈 것을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주변 언덕의 유명한 백 개의 꽃잎을 가진 꽃을 묘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근처의 금광을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Strumon 강을 묘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그들이 틀림없이 지나갔던 길 밖에 있던 고대 사자상을 묘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누가는 그런 것들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관심사가 아니거든요. 누가는 그보다 더 대중적인 수준에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꽤 인기가 있지만 마크보다 문학적 수준이 더 높습니다. 글을 읽을 수는 있지만 Paul만큼 정교하지는 않습니다. 엘리트는 아니지만 파피루스보다는 엘리트에 더 가깝습니다.

이제 루크도 연설을 합니다. 수사학은 역사상 중요했습니다. 특히 엘리트들에게는 중요했지만, 루크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누가의 행위의 서술적 응집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서로 맞습니다. Golder, Talbert 및 Tannehill은 모두 이를 강조합니다.

1960년대 Golder는 유사점을 다소 과장했지만 Talbert와 Tannehill은 훨씬 더 냉정하고 문학적이며 서사적 비평적 관점에서 이를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봅니다. 우리는 누가의 행동에서 패턴을 봅니다.

패턴이 역사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역사가들은 섭리가 이러한 패턴을 창조했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유사점처럼 보이는 것들을 강조할 것입니다. 섭리를 호소하는 할리카르나소스의 디오니시우스에게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요세푸스에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역사가 아피아누스(Appian)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드문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섭리가 그러한 패턴을 창조했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보는 사람의 눈에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들은 그러한 경우의 세부 사항을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평행 생활. Plutarch는 그가 기존 유사점을 찾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평행하지는 않지만 그는 평행 생활을 쓸 때 기존 평행선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 차이점을 없애지 않았습니다. 전기에서는 칭찬과 비난의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폴리비우스에 따르면 정당한 장점에 따라 지정되어야 했습니다.

즉,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는 없습니다. 칭찬과 비난을 할당할 때 실제로 존재하는 이야기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말만 하는 장례식 연설과는 다릅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비록 폴리비우스가 이것을 사악하게 공격했지만, 일부 역사가들은 선정주의적이었고 폴리비우스가 인용한 선정주의의 예는 역사가들이 실제로 비애를 가지고 노는 곳이었습니다. Antacidus가 Pathos를 플레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하는 것은 도시가 정복되고 사람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경우입니다.

그는 이 역사가가 나쁜 역사가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도하고 울고 있는 모든 여성들을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글쎄요, 제 추측으로는 그들은 노예로

끌려가면서 한탄하고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폴리비우스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모든 역사가가 그에게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루크는 약간의 비애감을 갖고 있지만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는 타키투스보다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파토스는 사건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다릅니다. 마치 바울이 떠날 때 사람들이 우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줍니다. 엘리트 역사가들은 장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언급했듯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요세푸스는 그렇게 합니다. 책을 살 여유가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책이 팔리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좀 더 대중적인 수준에서 볼 때, 그들은 엘리트 수사 기법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스토리텔링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뭔가를 발명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고대의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요? 글쎄요, 우리가 이미 말한 내용을 보면 그들이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역사가들에게는 편견, 즉 학자들이 경향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특정한 경향과 특정한 관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편견이라는 용어를 이런 식으로 사용할 때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특정한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현대 역사가들도 마찬가지다.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어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왜곡을 정당화하지 않는다고 말할 관점에서 글을 씁니다.

그러나 어쨌든 나는 그 모든 논쟁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링컨이나 처칠의 전기를 대조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 더 긍정적입니다. 일부는 더 부정적입니다.

또한 명시적인 초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에 관해 글을 쓸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신이 일을 꾸미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초점이 교회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양 역사가들은 서양 교회사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지만, 최근에는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아프리카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교회 역사는 어떻습니까? 사실 그런 것들이 이제 더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글을 쓰는 데는 특정한 관점이 있었고, 그들이 주로 다루는 내용을 결정하는 특정한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회사, 정치사, 여성사 등 관심 분야도 초점을 맞추게 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역사가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대에는 더욱 명백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명시적인 서술을 제쳐두기도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은 명청해서 그런 짓을 한 거야. 때때로 여러분은 매우 분명한 민족주의적 편견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매우 친로마적인 경향으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으며, 그것이 그 역사가 살아남은 이유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플루타르코스는 헤로도토스를 정말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헤로도토스의 악의에 대한 전체 에세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헤로도토스에 대해 무엇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헤로도토스는 플루타르코스가 태어난 보이오티아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알다시피, 당신은 우리 마을을 엉망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당신이 우리 마을에 대해 나쁜 글을 쓰면 나도 당신에 대해 나쁜 글을 쓸 것입니다. 그래서 Plutarch는 Herodotus를 인수하고 그를 악의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민족주의적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때로는 그들 중 일부가 너무 객관적으로 글을 써서 오늘날 역사가들이 실제로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도덕적 교훈. 책임 있는 역사가들은 역사를 그냥 공개하고 사람들이 그 역사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하도록 놔두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몇 가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연설에서 이러한 역사적 사례를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 논쟁 등에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사람들이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이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업을 시작할 때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현재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할 때 과거의 좋은 예와 나쁜 예를 찾을 수 있도록 도덕적인 예를 제공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어떤 예가 좋고 어떤 예가 나쁜지 항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것이 문화에서 당연하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 사도행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전달되는 특정 도덕이 있습니다.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춘 특정 그룹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 사실을 선택하는 것은 사실을 조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은 역사가 쓰여지는 방식이고 확실히 고대 역사서가 쓰여지는 방식입니다. 신학적 관점도 나타났다.

역사가들은 역사에서 신성한 손길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역사에서 패턴을 찾았고, 따라서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그리스 역사가들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하나님과 엘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사무엘과 엘리의 아들 흡니와 비느아를 비교합니다.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세요.

그것은 역사학이 쓰여지는 많은 방식의 특징이었으며 그리스 수사학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신성한 섭리. Halicarnassus의 Dionysius와 Josephus는 역사에서 이것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섭리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유대인 작가들은 희년과 같은 성서 역사를 업데이트할 때 특별한 신학적 강조점을 가졌습니다. 비록 희년이 우리가 창세기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에 상당히 가깝고 후속 유대 전통을 일부 추가함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심지어 요세푸스도 같은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의 성향을 볼 수는 있겠지만 말이죠.

때때로 그의 성향은 적절한 전기 서술 기술을 사용하여 헬레니즘 청중의 입맛에 맞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대 역사서술의 정확성은 어떻습니까? 역사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Tacitus, Thucydides 또는 Polybius는 Herodotus, 지리학자 Strabo 또는 Plutarch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인구 추정치와 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지만, 다시 말하지만, 그는 아마도 사람들을 세지 않았을 것이며, 우리는 그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거리를 이동했다고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들을 측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둥, 기념물, 가이사랴 마리티마 항구의 건축물과 같이 그가 측정할 수 있는 작은 것들에 대해서는 종종 매우 정확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건축 데이터와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때로 그는 일을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헤롯 안티파스는 어디에서 추방되었나요? 그는 갈리아로 추방되었지만, 요세푸스가 아닌 다른 곳으로 추방되었습니다.

글쎄, 적어도 우리는 그가 추방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세푸스는 고대 역사가들 중에서 가장 주의 깊은 사람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의 정보가 너무 정확해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에 놀라게 될 때도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세부사항에 대해 폭넓은 자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출처가 정확한 한, 대부분의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 배경과의 일관성 기준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사건 발생 시점에 가까운 작가, 특히 목격자를 선호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객관성이었고 그들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에 매우 비판적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위대한 아카이아 제국의 이야기, 즉 호메로스에 나오는 이야기를 비판한 사람은 아마도 투키디데스였을 것입니다. 미케네로 돌아가면 그곳에는 폐허만 있을 뿐 그다지 큰 곳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글쎄, 발굴 결과에 따르면 그 규모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컸지만 그는 비판적인 역사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보려고 노력했고 오늘날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리아드나 오디세이가 역사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이 전제했던 것 중 일부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투키디데스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정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객관성이 목표였으며 때로는 학자들이 예를 들어 Sallust가 그의 역사적 논문에서 어느 쪽으로 기울었는지 논쟁할 정도로 달성되었습니다. 연대기가 항상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폴리비우스(Polybius), 투키디데스(Thucydides), 타كت투스(Tacitus)에서 연대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군사 자료를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쓰고 있는 종류의 일이기 때문에 쓰여진 연대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두 소스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이 이 날짜에 일어났고 이 일이 이 날짜에 일어났다고 항상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일이 항상 정확한 순서로 있는 것은 아니며 그것은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물론 전기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역사학에서는 가능한 한 깍듯이 접근해야 했지만, 비록 이 장소에서 나중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다른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더라도 지리적으로 1년에서 다음 해까지 무언가를 추적하기 때문에 때로는 타협을 해야 했습니다. 아니면 같은 해에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로 전환한 다음 지리적으로 다시 전환합니까? 그리고 다른 역사가들은 이에 대해 다른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 중 일부는 다른 사람들의 기술을 비판했습니다. 소스 사용.

역사가들에게 전지한 서술자가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다양한 출처를 인용했습니다. 때로는 한쪽에 7개가 있고 다른쪽에 4개가 있고 역사가는 7개가 이렇게 말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역사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4개를 인용하여 7개 이상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그들 중 몇몇의 이름을 알려줬을 뿐입니다.

예외. 그들은 항상 다양한 출처를 인용하지는 않았지만 특히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인용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소식통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들 사이에 그다지 의견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출처를 언급할 가능성이 적었습니다.

아리안의 경우 아리안은 매우 존경받는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집필하는데, 아리아인은 1세기 말, 2세기 초에 글을 쓰고 있으며, 알렉산더 대왕은 기원전 323년에 죽고, 기원전 356~323년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세기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아리안은 오늘날 우리에게 유실된 작품이 많습니다. 그는 알렉산더 대왕에 관한 초기 작품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작품을 활용할 수 있었으며, 그가 작업할 수 있는 초기 자료가 있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를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출처가 서로 모순되기도 했고, 그는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견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세대나 2세대에 글을 쓴다면 증인들 사이에 그다지 모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루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누가는 복음서에서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출처를 세심하게 주의 깊게 다루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한 가지만 놓고 보면 루크와 마크를 비교해 보세요. 고대 역사를 연구하면서 내가 관찰한 바는 같은 시기를 다루는 고대 역사가들이 같은 사건을 다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종 정보에 대한 접근이 부족한 상세한 장면을 채웠습니다. 특히 사적인 장면이 있고 아무도 살아남지 못한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모두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요세푸스는 가끔 그런 일을 합니다. Tacitus조차도 때때로 그런 일을 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정확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좋은 스토리텔링을 위해 장면을 마무리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고대 역사학에 접근하는 방식에는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역사 서술이 현대 역사 서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현대 규칙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당신은 기술적으로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장르, 즉 현대 역사학을 기준으로 고대 역사학을 판단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극도로 보수적인 사람들도 있고, 우리의 매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우리는 이것에 대한 신뢰성을 버릴 것이라고 불평하는 일부 회의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역사가들은 일반적으로 내용과 사건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겼지만, 대화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이나 그와 유사한 모든 세부 사항에 있어서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또 다른 위험은 고대 역사 서술이 역사적 정보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내 말은, 현대 역사학은 고대 역사학에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많은 규칙은 신약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쓴 폴리비우스(Polybius)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역사서와 역사적 정보를 분리해서 사실상 소설과 같다고 가정한다면, 그것은 목욕물에 아기를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역사 속 소설은 고대에는 꽤 독특한 장르였습니다. Lukian은 훌륭한 전기 작가는 아첨을 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것은 사건을 왜곡하며, 오직 나쁜 역사가들만이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Pliny the Younger는 둘 다 2세기에 글을 쓰고 있지만 Pliny는 2세기 초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Pliny the Younger는 역사의 독특한 점은 정확한 사실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플리니우스는 역사의 주요 목표는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진실성과 정확성이라고 말했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물론 역사가들이 정확하게 글을 쓰고 싶다고 말하겠지만, 그것은 단지 관습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플리니우스는 역사가가 아닙니다.

플리니우스는 연설가이자 정치가이지만 역사가 정확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사실이라면 수사학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역사가인 친구 타키투스(Tacitus)와 수에토니우스(Suetonius)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Suetonius는 전기 작가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키투스에게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이 로마 제국의 역사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이 매우 중요한 기소, 내가 기소한 이 매우 중요한 사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확실히 하고 싶습니다. 타키투스의 특정 부분이 빠져 있기 때문에 타키투스가 그의 말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타키투스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는 거의 언급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Pliny가 말하는 것은 이제 정확한 진실만을 포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이 정확한 진실입니다. 그는 또한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사망한 그의 아버지, 그의 삼촌, 장로 플리니우스(Pliny the Elder)로부터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연사를 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 등에 관한 많은 백과사전적 정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폼페이를 떠나는 동안 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알아보고 싶었고 그게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야기할 수 있는 생존자들이 있었고, 소(Pliny the Younger)는 그 정보를 타키투스에게 매우 기쁘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정보이고 그들은 그것이 진짜 정보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글을 쓰면서 오래 전에 플라톤의 제자였던 알렉산더 대왕의 가정교사였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시와 역사의 차이는 형식이 아니라 역사를 운문으로 쓸 수 있다는 점에서 나중에 입증됐지만, 내용이 아닙니다.

역사는 일어날 수 있는 일뿐만 아니라 일어난 일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실제 사건을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크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소설과 역사학을 혼동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일부 역사 소설이나 아주 형편없이 쓰여진 역사를 취하지만 그것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두 장르의 주류가 매우 분리되어 있습니다. 현대 민족 중심적 편견에 반하는 비판적 역사학. 고대인들은 비판적인 역사 서술을 실천했습니다.

내가 말했듯이, 현대 관행의 대부분은 폴리비우스가 티마이오스를 비판했기 때문에 아마도 티마이오스가 라이벌이었고 티마이오스의 역사가 아닌 자신의 역사가 살아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폴리비우스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역사가들은 종종 그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작가의 편견을 조사할 것입니다.

그들은 지리, 유적, 내부 일관성 등과의 일관성을 테스트했습니다. 그들이 선호하는 출처는 사건과 가장 가까운 초기 출처, 특히 목격자였습니다. 그들은 편견을 가지기 가장 쉬운 사람들을 선호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소스를 비교했습니다. 즉, 고대 역사가들은 사실을 바로잡는 데 관심을 가졌습니다. 심지어 요세푸스도요.

요세푸스는 성경의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때때로 내가 언급했듯이 그는 이러한 이야기를 위해 새로운 연설을 만듭니다. 그는 수사적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는 금송아지를 생략했습니다. 내 말은, 여러분은 금송아지에 대한 변증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아니, 그는 단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 이야기의 기본 내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가 살았던 시대에는 고고학이 그를 아주 자세하게 확증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요세푸스는 가장 정확한 역사가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들 중 가장 부주의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세푸스로부터 너무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이 그의 말을 받아들여야 하거나 그가 틀렸다고 가정해야 한다면, 저는 우선 그렇게 하지 않을 타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쉬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대 사건의 역사가들이 고대 과거의

대부분이 허구에 가려져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은 최근 사건에 대해 글을 쓸 때 목격자의 증언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누가복음 1장 2절에서 목격자들에 관해 누가가 이야기한 것처럼 구두 보고를 수집했습니다. 우리는 Suetonius와 다른 사람들을 알고 있으며 그들은 증인과 상담했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들이 상담한 증인을 언급합니다. 때때로 그들은 그들이 의존하는 사건 직후에 쓰여진 작품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사건에 대해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행위는 재미있나요? 예. 그러나 역사가들은 재미있는 방식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소설과 역사서의 차이점은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고대인들은 진리를 사용하여 도덕적 교훈을 가르치고 오락을 즐길 수도 있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은 루크 자신의 사건을 테스트합니다.

누가의 방법은 무엇이었는가? 글쎄요, 루크는 실제로 그의 첫 번째 책의 서문에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가 마가와 무엇을 했는지 비교함으로써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문에 누가의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서문은 다음에 나올 내용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 약속된 내용인 누가복음 1:1-3은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들에 대한 질서 있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데오빌로가 그러한 사건에 대해 알게 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4절에 따라 썼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가 역사적인 정보에 대해 쓸 것이고 테오플루스가 이미 알고 있던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그것에 대해 쓸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곧 다루게 될 내용은 이 서문인 누가복음 1:1-4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Luke가 사용할 수 있는 소스에 대해 많은 것을 알려줍니다. 서면 출처, 구두 출처, 목격자에게 돌아갑니다.

누가는 철저한 지식을 갖고 있거나 자신의 연구를 통해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3절). 또한 누가는 날조할 수도 없었습니다. 누가는 단지 내용을 꾸며내고 있을 수는 없었으며, 확실히 아주 큰 규모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이미 초대 교회에 알려져 있었고 그는 청중들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을 단지 확인하고 있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션에서는 이러한 각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세션 2, 장르와 역사학입니다.